

# 아픈 날

이은서 글  
천유주 그림



**아픈 날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보건실 #아픔 #위로 #걱정 #감정표현



X 참샘스쿨



## ■ 도서 소개

보건실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1학년 예원이는 밤새 아팠다. 아침에는 엄마와 병원에 갔다. 오늘 하루는 학교를 쉬고 엄마와 함께 집에 있고 싶다. 하지만 회사 때문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오늘따라 학교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선생님은 예원이를 걱정하며 짝꿍 미나에게 같이 보건실에 다녀오라고 한다. 예원이는 보건실에 처음 가 본다. 선생님이 무서울까, 주사를 놓을까 걱정이다. 그러자 미나가 언니처럼 예원이를 안심시켜 준다. 드디어 보건실 문 앞에 선 두 사람. 보건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 ■ 교육과정 연계

1학년 국어 1학기 <7. 알맞은 낱말을 찾아요>

1학년 통합교과 1학기 <학교>

2학년 국어 1학기 <5. 마음을 짐작해요>

2학년 국어 1학기 <8.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 ■ 수업 계획

독서 단계	수업 활동	
읽기 전		[활동①] 표지 보고 이야기 상상하기
	1-2차시	[활동②] 알쏭달쏭 낱말의 뜻 짐작하기 [활동③] 재미있는 표현 따라 쓰기
	3차시	[활동④] 병원에 가 본 경험 떠올려 보기
읽기 중	4차시	[활동⑤] 예원이의 마음 짐작하기
	5차시	[활동⑥] 보건 선생님의 첫인상 생각해 보기
	6-7차시	[활동⑦] 마음을 사르르 녹여 주는 것 생각해 보기
		[활동⑧] 보건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기
읽기 후	8차시	[활동⑨] 예원이와 미나의 성격 알아보기
	9차시	[활동⑩]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 떠올려 보기

## 활동 ① 표지 보고 이야기 상상하기

표지를 살펴보며 책의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봅시다.



Blank writing area with seven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lines for notes.

- 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어 봅시다.

Blank rectangular box for writing observations from the cover.

- 표지 속 주인공은 어떤 상황인 것 같는지 써 봅시다.

Blank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bout the main character's situation.

-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 봅시다.

Blank rectangular box for writing predictions about the story.

## 활동 2

## 알쏭달쏭 낱말의 뜻

책에 나오는 알쏭달쏭 어려운 낱말의 뜻을 짐작해 봅시다.

- 책 속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뜻을 짐작해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잇고, 내가 들어보거나 사용해 본 단어에 색칠해 봅시다.

나는 쭈뼛쭈뼛 따라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잘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내 마음도 덩달아  
든든해져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양

참말로 목소리 나네요잉.

익숙하지 않거나 부끄러워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모양

미나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스르르 잠들거나  
쓰러지는 것

마음이 조금 뜨끔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불에 데거나 찢린 것처럼  
뜨겁고 아픈 것

## 활동 ③

## 재미있는 표현 따라 쓰기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을 따라 쓰며 뜻을 알아봅시다.

■ 책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을 따라 쓰고 뜻을 알아봅시다.

꽁	꽁
---	---

몹시 앓거나 힘겨울 때 자꾸 내는 소리

덩	그	러	니
---	---	---	---

홀로 우뚝 드러난 모양

터	덜	터	덜
---	---	---	---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속 힘없이 걷는 소리

재	잘	재	잘
---	---	---	---

낮고 빠른 목소리로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

찌	르	르
---	---	---

몸의 일부가 조금 저린 느낌

버	글	버	글
---	---	---	---

많은 양의 물이 끓거나 솟아오르는 소리

그	렁	그	렁
---	---	---	---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고인 모양

주	춤	주	춤
---	---	---	---

행동을 망설이며 자꾸 머뭇거리는 모양

듬	뽕
---	---

넘칠 정도로 매우 가득하거나 수북한 모양

활동 4

병원에 가 본 경험 떠올려 보기

[병원에서] 병원에 가 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병원에 가 본 경험을 떠올리며 나의 마음에 해당하는 만큼 색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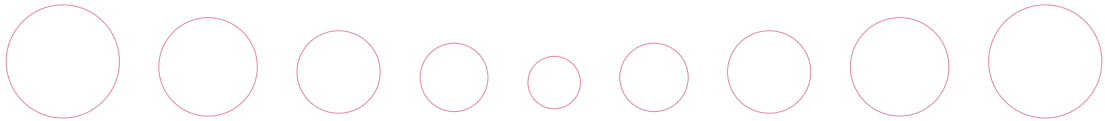
나는 병원에 가는 것이



↑ 전혀 무섭지 않아요

많이 무서워요 ↑

나는 진찰을 받는 것이



↑ 전혀 싫지 않아요

정말 싫어요 ↑

나는 주사를 맞는 것이



↑ 전혀 무섭지 않아요

많이 무서워요 ↑

나는 약을 먹는 것이



↑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려워요 ↑

■ 아파도 꼭 참고 학교에 가는 예원이, 그리고 학교를 쉬는 다른 친구.

나는 아플 때 학교에 가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떠했나요?





활동 6

보건 선생님의 첫인상 생각해 보기

[보건실 앞에서] 보건 선생님의 첫인상을 생각해 봅시다.

■ 보건 선생님은 어떤 분일 것 같은지 모두 골라 색칠해 봅시다.

친근하다

재미있다

조용하다

따뜻하다

시끄럽다

무섭다

진지하다

듬직하다

엄격하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다정하다

부드럽다



## 활동 7

## 마음을 사르르 녹여 주는 것 떠올려 보기

[보건실에서] 예원이가 마신 유자차처럼 내 마음을 사르르 녹여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마음이 사르르 녹은 예원과 미나. 보건실에 처음 왔을 때와 유자차를 마신 후 예원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짐작해 봅시다.

보건실에 처음 왔을 때

유자차를 마신 후



-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 나의 마음을 달래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림으로 그리고 짧은 글로 설명해 봅시다.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 나를 달래 주는 것

---



---



---

활동 8

보건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기

[보건실에서] 보건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사투리를 쓰는 예원이네 보건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 다른 표현을 찾아 색칠해 봅시다.

얼릉얼릉  
들어와요잉!

참말로  
똑소리  
나네요잉.

워매 어쩔까잉.

잠깐 기다려  
봐요잉.

뒗 헐라고요.

예원이가  
속상했나  
보네요잉.

조심허야  
되니께 쫘끔  
쉬다 가요잉.



어른들은  
다 그려요.

■ 보건 선생님의 말 중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말을 따라 쓰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한 말	
그렇게 생각한 이유	

■ 보건 선생님을 만난 후 예원은 보건실과 보건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원의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활동 9

예원이와 미나의 성격 알아보기

예원이와 미나의 성격을 생각해 보고 나와 더 비슷한 친구를 찾아봅시다.

■ 같은 반 친구지만 서로 다른 예원이와 미나. 두 친구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적어 봅시다.

예원은요

미나는요



■ 나는 예원이와 미나 중 누구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나와 비슷한 친구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짧은 문장으로 써 봅시다.

나와 더 비슷한 친구는 ( 예원이 / 미나 )입니다.

왜냐하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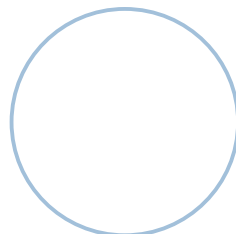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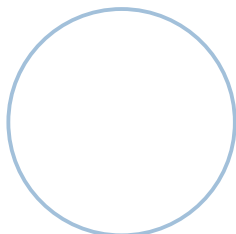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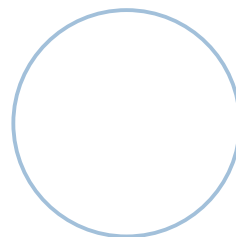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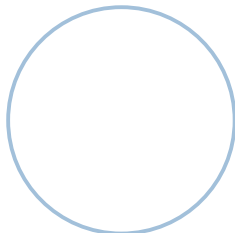
---

활동 10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 떠올려 보기

내가 아플 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적어 봅시다.



■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

주고 싶은 선물

전하고 싶은 말

.....

.....

.....



## 참고

## 알쏭달쏭 낱말의 뜻

책에 나오는 알쏭달쏭 어려운 낱말의 뜻을 확인해 봅시다.

- 책 속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뜻을 짐작해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잇고, 내가 들어보거나 사용해 본 단어에 색칠해 봅시다.

나는 **쭈뼛쭈뼛** 따라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잘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내 마음도 **덩달아**  
든든해져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양

**참말로** 목소리 나네요잉.

익숙하지 않거나 부끄러워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모양

미나가 **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스르르 잠들거나  
쓰러지는 것

마음이 조금 **뜨끔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불에 데거나 찢린 것처럼  
뜨겁고 아픈 것